## 초등생·주부 등이 쓴 '일기장으로 본 5·18' 그날의 참혹함과 아픔 담긴 생생한 기억들

"하나의 총알이 주방 유리창을 뚫고 맞 은편 벽에 꽂혔다.….난데없이 등에 뭐가 꽉 박히며 코와 입으로 피가 쏟아져 나왔 다. (아침 6시 30분경)"

1980년 5월 당시 전남대 2학년생으로 당시의 참혹함과 아픔을 온몸으로 겪은 김 윤희씨 일기장에 적힌 내용 일부다.

김씨는 40년 전인 1980년 5월 27일, 옛 전남도청 진압작전인 '상무충정작전' 때 본인이 경험한 내용을 일기장에 자세하게 적어놓았다.

전일빌딩 뒷편인 YWCA 건물 안에 있 었던 김씨의 일기장에는 '새벽 3시께 전남 도청에서 "광주시민이여 계엄군이 들어오 고 있습니다. 도청으로 모여주십시오"라는 여성의 방송을 들었다'고 적혀 있었다.

김씨는 '새벽 4시 30분께 큰 폭음에 잠 이 깼지만 도망을 가지 않고 YWCA에서 밥을 앉히고 있는 순간, 총격을 경험하고 총알에 맞기까지 했다'고 썼다. 일기장에 는 '총알에 맞는 순간, "아! 맞았구나. 하지 만 난 부끄럽지 않을 수 있겠다"라는 생각 "등에 뭐가 박히며 피가 쏟아졌다" "사람들이 왜 죽는지 알길이 없다' 국가 폭력의 공포 고스란히

5·18기록관에 총 14편 기증 기억의 산물 체계화 보존해야 5월 13일부터 서울서 특별전

까지 들었다'고 쓰여 있었다.

5·18민주화운동기록관이 지난 1980년 5월 당시를 기록한 광주시민의 일기장 14 편을 기증받아 29일 공개했다. 지난 2011 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올린 주소연. 조한유·주이택&조한금씨 등이 쓴 일기장

1980년 당시 동산국민(초등)학교 6학 년이던 김현경, 주부 김송덕과 강서옥, 80 년 5월 27일 옛 전남도청에서 사망한 문용 동 전도사, 직장인 박연철, 전남대 사범대 4학년이던 이춘례씨 등의 일기장도 기증 돼 파일 형태로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했

40년 전 고등학생, 대학생, 직장인과 주 부 등 시민들의 일기장에는 지난 1980년 5 ·18의 진실과 무자비한 국가 폭력에 대한 공포가 담겨 있었다.

끔찍한 당시 상황을 하루하루 기록하는 가 하면, 모든 상황이 종료된 이후 한꺼번 에 쓰거나 기록으로 남겨야한다는 사명감 으로 쓴 일기장도 있다.

서석고 3학년이던 장식씨는 5월 당시 상 황을 일기장에 매일 정리해놓았다.

장씨는 일기장에 '5월 26일 광주은행 본점 앞으로 오니 총성나고 있었고 마이크 를 들고 있던 대학생이 왼팔에 총을 맞고 쓰러지는 장면을 목격했다'고 썼고 또 '목 에서 피가 난 사람도 있었고 군인들이 총 을 쏜 것 같다며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바 로 후방에서 총성이 들려 겁이 나 달려 목 으로 빠져 나왔다'고 적었

장씨는 일기장에 1980년 5월 31일 광주시내에 위치한 탱크・군인・장갑차 위치를 직 접 손으로 그려넣은 약도와 5·18당시 상황을 알리기 위 한 호소문도 적어놓았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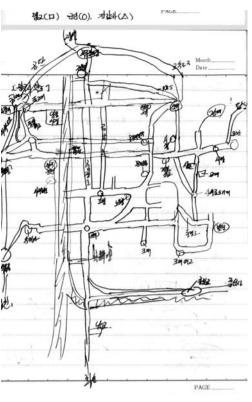
이미 '5·18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 기록물'로 등록된 조한유씨 부인 허경덕씨도 당시 써놓은 일기장을 기증 해 공개됐다.

허씨는 당시 하숙집을 운 영하면서 광주 상황을 메모

형태로 기록해놓았다. 일기장에는 '모든 통신망은 불통이고 흉흉한 소식만 무성하 다', '지나가던 사람도 죽고 장사하던 가람 도 죽고 차타고 일가족이 자나다가 죽고 부상당하고 왜인지 도무지 알길이 없다"는 내용이 담겨 있다.

기록관측은 "오월 일기는 5·18을 경험하

स्थ ६०६ वर्षा स्थापन Exist . It of 9 4 经的 子 25 250) रिपृह्न ट्येन्टर नेरेक्स सुध 400) 26-14/24 17/2 deno 9 78/2-येत्र १ १ १३३६ व्या गाइन्द्र हर्गादेवप कर्म रीहिंग थ्री २५१२ निर्महर्ग थ्रिप्स



1980년 5월 27일 YWCA상황을 기록한 김윤희 씨의 일기장(왼쪽)과 1980년 5월 31일 광주 상황을 약도로 남긴 장식 씨의 일기장 일부.

지 못한 현재의 젊은 세대에게 당시의 평 범한 일반인들의 경험을 전달해주는 중요 한 매개체"라며 "역사 자료 뿐 아니라 시민 들의 잊지 못한 기억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체계적으로 남겨놓아야 한다"고 밝혔다.

기증자들은 "5·18민주화운동을 왜곡·폄 훼하는 가짜뉴스를 보며 5·18의 진실을 알 리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 다"고 입을 모았다.

한편, 이들 일기장은 오는 5월 13일부터 10월 31일까지 서울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에서 열리는 전시회를 통해 다른 지역민들 에게도 공개된다.

/정병호 기자 jusbh@kwangju.co.kr

## 경기 이천 물류창고 공사현장 큰불 11명 사망

9개 업체 78명 근무 근로자 10여명 연락 안돼 인명 피해 더 늘어날 듯

경기도 이천 지역 물류창고 공사현장에 서 큰 불이나 11명이 숨지고 10여명이 연 락이 두절된 상태다.

특히 작업중인 인원이 100여명에 이르 는데다, 연락이 닿지 않는 노동자들이 적 지 않아 수색이 본격화되면 인명피해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다.

29일 오후 1시 32분께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의 한 물류창고 공사현장에서 불이

이 불로 오후 7시 현재까지 공사현장에 서 작업하던 근로자 11명이 사망했다.

소방당국은 5~9개 소방서 인력 150여 명과 펌프차 등 장비 70여 대를 투입해 진 화작업에 나선 상태다

하지만 불이 시작된 곳이 지하로 추정 되는 데다 현장에 유독성 연기가 많이 남 아 있어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.

소방 관계자는 "물류창고의 지하 공사 현장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"며



29일 오후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의 한 물류창고 공사 현장에서 불이 나 소방관들이 진화작업 및 인명 수색을 하고 있다. /연합뉴스

"가용 가능한 인력과 장비를 모두 동원해 불을 끄고 있다"고 말했다.

근무 중인 것으로 파악됐으나, 이 중 다수

화재 당시 이곳에서는 9개 업체 78명이 가 아직 연락이 닿고 있지 않아 추가 인명 피해가 우려된다.

## 기아차노조, 박병규·이기곤 전 기아차 노조지회장 제명 법원 "규약 안지키고 절차상 명백한 하자 있어 무효" 판결

소명 기회도 제대로 부여 안해

전국금속노조 기아자동차 지부(이하기 아차 노조)가 '광주형 일자리'에 협력했다 는 이유로 박병규 전 광주시 경제부시장 (전 기아차 노조 광주지회장)과 이기곤 전 기아차 노조 광주지회장을 제명 처분한 것 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.

광주지법 민사 11부(부장판사 전일호) 는 박 전 부시장과 이 전 지회장 등이 전국 금속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'제명무효확 인'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.

재판부는 "기아차 노조가 지난해 운영위 원회에서 박 전 부시장 등의 제명을 결의 한 것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무효"라 고 판시했다.

기아차 노조가 상벌규정에 위반한 징계 절차를 진행했고 박 전 부시장 등에게 소명 할 기회를 제대로 부여하지 않은 채 제명 처 분을 했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. 노조는 규약 내 상벌규정으로 '징계결의를 요청하 기 위한 심의를 하고자 할 경우 적어도 심의 1일 전 당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해야 한 다'고 규정하고 '징계결의를 요청받은 기관 은 징계의결 일시, 장소, 징계당사자 권리

등을 적어도 3일 전에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'고 적시하고 있다.

노조는 그러나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이 들에 대한 징계를 심의하기 전 징계사유 통지도 없었고 징계를 의결하는 기관인 운 영위원회도 3일 전이 아닌, 1일 전에야 징 계의결 장소, 징계당사자 권리 등을 박 전 부시장 등에게 통지했다.

재판부는 또 "박 전 부시장 등에 대한 구 체적 징계 사유가 무엇인지 밝혀지지 않았 고 징계절차에서 이들의 방어권도 전혀 행 사하지 못했다"고 밝혔다.박 전 부시장은 현대자동차와의 투자 협상 과정에서 광주 시와 노동계의 창구 역할을 하며 투자 협 약을 끌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. 광주 형 일자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며 기아 차 노조로부터 제명되고 기아차 노조 광주

지회장에서 물러나기도 했다. 한편, 기아차 노조는 지난해 4월 열린 정 기대의원대회에서 '박 전 부시장 등의 제 명을 결의해 지부 운영위원회에 권고한 다'고 결정한 데 이어 9월 열린 운영위원회 에서 제명을 결의했고 박 전 부시장 등은 불복해 10월 소송을 냈다.

/김지을 기자 dok2000@kwangju.co.ki



